전북 농기계기업 아프리카 시장 진출

위캔글로벌, 탄자니아와 5백만불 수출계약 체결

1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위캔글로벌(전북)과 SUN Machineries(탄자니아)의 수출 계약 체결식에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하여 김준환 위캔글로벌 대표이사, semfuko 회장(탄자니아 바이어) 및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적인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농기계 생산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로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기업인 위캔글로벌(대표 김준환)은 탄자니아 바이어(SUN Machineries, LTD)와 1단계로 농기계 5백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위캔글로벌은 익산 삼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농업용 로터베이터, 쟁기 등 20종의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2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이번 계약은 위캔글로벌 김준환 대표가 지난 5월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가 지원하는 아프리카 무역사절단에 참여해 탄자니아 현지에서 상담한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탄자니아 바이어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 광산 및 건설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써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위임받았다. 탄자니아 측은 위캔글로벌에서 생산하는 농기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이번에 총괄회장인 Semfuko와 전무이사인 Dewj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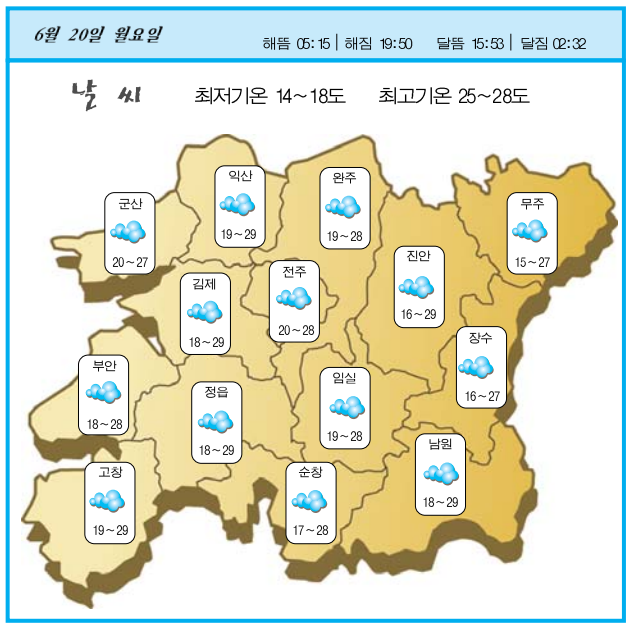
이번 위캔글로벌의 아프리카와의 첫 계약은 5백만불을 수주했고 앞으로 매년 2백만불을 추가해 7백만불씩 계약하기로 함으로써 전북 농기계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있다. 이들은 향후 한옥마을과 새만금을 방문할 계획으로 아프리카에 우리도의 문화와 투자환경을 전할 전도사 역할도 함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캔글로벌 김준환 대표는 "Semfuko 총괄 회장이 농업 분야의 총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농업기계 전문기업인 위캔글로벌이 전북기업의 아프리카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 수출이 부진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큰 성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연 24억원의 도비를 꾸준히 지원해 무역사절단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상담회, 무역컨설팅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범 국가적인 수출 실적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전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오고 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 운영

전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기존 기업에로 해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일선 대민행정 시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 사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설명 및 규제개선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규제개혁 발굴단은 동 주민센터 직원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각종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에서 근무하는 신규직원 중심으로 생생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전파로 규제개선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대민행정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 발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과제 주요 발굴 분야는 △출생·육아·청년취업 등 생애주기별 과제 △교통·자동차·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불편 과제 등 대민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 '꿀보직 꿰차기' 줄대기 '눈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년퇴임 앞당겨 미리 사표 내고 좋은자리로 옮겨 더 일하려는 '꼼수' 비난 거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연말 공로연수를 앞둔 서기관이 인사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설이 확산되는 등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고위직 J공무원은 올연말 공로연수를 앞둔 상황에서 K이사장이 사퇴할 경우, 본인도 사직서를 내고 차기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여기저기에 무차별적으로 줄을 대고있다는 비난이 파다하다.

J서기관은 이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측근으로 불리는 도의원들과 시의원 등을 접촉하는가 하면, 전주시장과 친분이 깊은 고위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나 부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같은 J서기관의 행보는 이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청내 직원들로 부터 축하한다는 인사를 받는 등 구청내에서 입소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J서기관의 상식이하의 처신은 전주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 전체가 인사운동으로 전환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공무원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전주시 한 공무원은 "고위급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김 시장의 시정을 보필하는데 힘을 쓰지는 않고, 자리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년퇴임에 앞당겨 미리 사표를 내고 고위직 자리로 옮겨 3년을 더 일한다는 발상이 현실화된다면 전주시 인사는 '막장코미디'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은 "김승수 시장이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누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 모르겠다.

앞으로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이고 나는 내년 6월까지 인데 엉터리같은 소리다. 최근 이사장을 만났는데 건강이 괜찮아졌더라"며 "이사장 자리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후배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도리 상 안될 일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서울시 협력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강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관광 확대를 위해 전주시와 서울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두 사회적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 사회적기업 (사)꼭두와 서울시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는 18일 전주향교에서 지역아동 100여명과 함께 '세종, 인재를 뽑다'를 주제로 한 과거시험 재현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주)아트브릿지의 사업모델을 전주 (사)꼭두의 기반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기업은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통해 향후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공동 발굴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첫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과거시험 재현행사에는 두 사회적기업과 함께 전주향교, 전주시청 사회적경제지원과가 협력해 지역 아동들에게 연극과 체험, 교육이 가미된 기발한 체험행사를 선보였다. 조선시대 문과 시험을 연극공연 형식으로 재현, 체험에 참여한 아동들이 도포와 유건을 착용하고 역사퀴즈, 시짓기, 그림그리기로 역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전주의 전통문화시설인 향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와 체결한 상생우호교류협약의 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